

# 대구 금융업 분포의 공간적 특성과 입지요인

박민수, 송영민

## < 목 차 >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사례분석 지역의 특성

### 2. 선행연구와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금융업의 발달 및 현황
-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금융공간의 변화
- 3)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의한 금융소외 현상
- 4) 은행점포의 의의와 유형별 입지
- 5) 국내은행의 입지

### 3. 대구시의 은행업 영업지점 분포

### 4. 점포 수 만족도 및 은행 방문율 변화

- 1) 실거주지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
- 2) IT뱅킹 사용 이후 은행 방문율 변화
- 3)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분석

### 5. 결론

### 6. 참고문헌

### 7. 부록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중간 서비스나 중간 수요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과정의 다양화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많은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최근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금융업 역시 기업의 생산 활동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의 활동은 금융업에 대한 의존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업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업이란 자금의 유통·공급을 행하는 영리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업이지만, 그 밖에도 각종 금고·조합 등 금융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금융업은 분류에 따라 제 1금융권,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금융권이란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하며 예금의 유치 및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제 2금융권은 증권,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캐피탈 등을 포함하며 일반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제3금융권이란 사금융 이라고

도 말을 하며 1,2 금융권을 제외한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을 의미한다. 3금융의 경우 예금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대출만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은행 체제가 구축된 것은 1870년대 말 부터이다. 개항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확장되었으며 주로 일본의 주도하에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기 금융권 장악을 위하여 특수 금융기관을 설립하였고 일반 은행의 설립과 재편을 허용하였다. 또한 여러 특수 금융기관과 은행의 설립을 통하여 일본주도의 은행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일본이 주도하던 은행업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되고 한국은행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의 은행시대가 열렸다.

현재 금융업은 컴퓨터 및 고도의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정보를 수집, 처리, 창출하는 금융정보화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금융업은 재고·배송 관리가 다른 일반 소비재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일찍부터 정보화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금융정보화의 과정은 전산화를 통한 업무자동화 단계, 각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다른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마지막 단계는 CD/ATM기나 전화,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 채널이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 등의 발달로 점차적으로 현금을 대체하여 금융정보화를 한층 더 진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과거 점포 위주의 단일 채널에서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변하는 것은 단순히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넘어서 금융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높은 접근성과 고도의 집중적 양상을 보였던 전통적인 금융공간이 금융정보화에 의해서 입지가 어떻게 변화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수도 있으며, 금융업의 특수한 입지가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소 차별화된 공간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인한 현재의 금융업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특성이 어떠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전자수단을 통해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의 집적이의이나 특정 장소의 지리적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이전의 금융업의 입지와는 다르게 그 영향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업의 점포 그 고유의 특성 및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공간의 중요성이 결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업 중에서도 제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을 대표로 하여 지역적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입지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지역 내의 동(행정적 지역구분)별로 은행점포의 수 및 밀집도를 조사하여 소득에 의한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은행점포 입지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셋째로 지역의 소득이 금융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 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제 1금융권 즉, 은행을 대상으로 둔다. 은행 중에서도 분류상에 따른 ‘일반은행’ 과 ‘지역은행’ 에 해당하는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두었다. 대부업의 경우에 ‘기타 여신금융업’ 과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적인 업소가 더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 또한 여타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경북권내에서 금융업의 집중도가 대구가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대구광역시로 지정하였다. 지방행정 단위 분리를 기준으로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총 17개의 제1금융권 은행(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한국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외환은행의 지점정보와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의 정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은행업의 분포의 경우 2016년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에 사용되는 분포의 자료는 각 은행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점들의 위치와 수를 이용하였다.

금융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분포와 지역의 금융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은행의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대구지역의 은행분포 및 현황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정보통신의 발달이 은행의 입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때 설문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넷째로 은행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은행의 포털 사이트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자료는 각각 읍·면·동 단위까지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현재 금융업의 분포의 특징과 입지의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마무리 짓고자 한다.

## 3) 사례분석 지역의 특성

통계자료를 위한 설문조사는 대구 내 지역에서 상대적 저소득 지역에 속하는 서구 비산동 지역과, 상대적 고소득 지역에 속하는 수성구 황금동 지역을 각각 50부씩으로 표본의 크기는 총 100명으로 진행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의 초점은 크게 실거주지에 따른 금융소외현상과 IT뱅킹 사용이후 은행이용률의 변화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였다.

수성구 황금동 지역과 서구 비산동 지역을 각각 고소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으로 분류 한데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지표를 활용하였다. 수성구 황금동 지역은 최근 개발된 지역으로 고급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구 비산동 지역은 1970년대 형성된 이후 산업단지가 형성 되고 이에 따라 주거단지가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현재 슬럼화가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다.

<표 1> 선정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비산7동					황금동				
번지수	건물 용도	공시 지가 (원/m <sup>2</sup> )	주택 면적 (m <sup>2</sup> )	주택 가격 (천 원)	번지수	건물 용도	공시지 가(원/ m <sup>2</sup> )	주택면 적 (m <sup>2</sup> )	주택 가격 (천 원)
1280-9	단독 주택	490,000	140.73	73,500	883-3	단독 주택	803,600	148.9	230,000
899-13	다세대 주택	494,900	251.94	120,000	566-1	단독 주택	820,000	160.82	223,000
1285-6	다세대 주택	495,000	178.61	86,300	851-7	다세대 주택	960,000	145.93	197,000
1284-3	단독 주택	495,000	133.39	67,000	830-14	다세대 주택	792,800	175.61	220,000

다음 <표 1>은 비산7동 지역과 황금동 지역의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나타낸 지표이다. 비산7동과 황금동 지역의 공시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공시가격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 저소득 지역을 서구 비산동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상대적 고소득 지역을 수성구 황금동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2. 선행연구와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를 하여 보았다. 먼저 금융업의 발달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알아본다. 둘째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금융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셋째로,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금융소외현상을 가져왔다는 연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넷째로, 은행 점포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연구대상을 지정하였다.

### 1) 금융업의 발달 및 현황

한국금융의 발전은 과거 경제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주도의 개발금융이라는 형태가 1980년대까지의 주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 산업 및 금융시장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변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와 경쟁체제 구축에 의한 금융자유화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최진배, 1992).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금융의 패러다임을 점진적인 변화와 개방보다는 외부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이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금융 산업이나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2)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금융공간의 변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금융부문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업무처리 속도의 증가,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금융활동, 금융서비스 채널의 다양화와 복잡한 파생상품의 등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절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금융공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공간이 변화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물리적 입지의 중요성 약화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금융 부문에 미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금융서비스의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물리적 입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금융업에서 물리적 입지에 기반한 점포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점포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금융상품 판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점포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점포의 전통적인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상품판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동화기기·텔레뱅킹·인터넷뱅킹·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뱅킹 등의 도입은 과거 점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금융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예금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개설·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업무의 전산화는 고객의 편의를 증가시키고, 비용절감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핵심전략이 되었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점포의 기능 또한 전자수단을 이용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 스코어링 시스템 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스코어링 시스템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과거의 신용기록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금리 및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물리적 접촉을 통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J.Pollard(1999)는 과거 점포가 고객과 은행원간의 대면접촉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정보가 교환되는 ‘관계금융’의 장이었다면, 이제 지점은 단순한 ‘상품진열대’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이혜원, 2004, 은행 점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 요인 9p 재인용).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의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플랫폼, 물리적인 접촉 없이 금융정보 수집·분석도구의 제공은 물리적 입지에 기반한 기존의 금융공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3)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의한 금융 소외현상

신경제지리학과는 경제적 행위들의 입지를 집적하려는 힘과 분산하려는 힘 사이의 균형이 공간상에 재현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통해 금융 중심지의 형성과 진화를 설명한다. 구심력과 원심력의 역할을 하는 금융업의 전통적인 입지요인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면 어떤 공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Drennan(1986)은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 집약적 산업을 정의한 후, 정보 집약적 산업이 뉴욕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금융업이 타 산업에 비해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와 차후 금융업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Reed(1989)와 Thrift(1989)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원격조종이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의 형성을 가능

케 한다고 하였으며, 금융업이 소수의 국제적 도시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들 도시의 풍부한 정보기술 하부구조에서 찾았다 (이혜원, 2004, 재인용). 최근 정보화 시대 금융활동의 공간적 집중 심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금융활동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국지적 착근성에 주목하거나 신경지리학에서 논의하는 경로의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금융의 공간적 집중을 다룬 연구가 있다면, 집중의 다른 극단을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 경제지리학 내에서 이와 같은 연구로 ‘금융 소외’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금융 소외란 특정 소비자 집단이 경제적 이유, 인구학적 특성이나 거주지에 의해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별 또는 배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 소외는 특정 지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열악한 서비스 조건, 가격차별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김문길(2010)의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통용되는 금융소외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금융소외를 ‘사람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류시장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의 접근과 그 사용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문길; 2010)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들은 지역적인 개념보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규정된 부분들이 많으며 금융소외에 대한 지리적 개념은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지리적 개념의 금융소외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정하기에 기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문은진(2013)은 금융 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금융소외에 관한 연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소외에 관한 연구를 커널밀도와 공간적 자기 상관 분석을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커널밀도를 사용한 은행의 분포 패턴은 서울의 경우 외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라고 하였다. 또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중심지역이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서울 중심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명확하게 지역적 구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은행의 입지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는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소외 현상이 지역의 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은행 점포의 의의와 유형별 입지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운용하며, 이것으로부터 얻는 예금 및 대출이자 차이와 각종 수수료를 수입의 원천으로 하여 성립하는 기업체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점포는 영업장소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영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영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공개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 이외에 부수업무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영업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지점, 출장소, 임시점포, 지소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수신 또는 여신업무를 하는 영업장소가 바로 영업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인하여 은행업무의 전산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장소의 고정성이 강조된 기존 점포 개념에 비해 영업소 개념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은 은행 간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은행 간의 경쟁은 비가격 경쟁이 중심이 되며, 최적 입지환경을 선택하여 적절한 규모로 점포를 합리적으로

은행점포를 배치하고 있다.

은행법 및 관련 규정상 현재 운영 중인 영업소의 종류는 본점, 지점, 대리점, 법인거래지점, 출장소, 임시점포가 있다.

본점은 대개 업무의 전반을 통합하는 시설로서 도시 내 중심 지구에 입지를 한다.

지점은 본점이라는 하나의 통일적인 중심에 의하여 지휘를 받으면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따라서 지점은 대개 수익성을 분석한 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발생하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출장소는 공공시설 및 상가, 주택가 등 특정 금융 수요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과 규모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따라서 은행이 존재하지 않지만 은행 업무를 필요로 하는 신도시 등에 입지를 한다.

유사 영업소는 상기 영업소 이외에도 은행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유사형태의 영업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CD기 ATM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개 은행의 보조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은행의 보조시설이나 은행의 주변에 입지를 한다.

## 5) 국내은행의 입지

### (1) 국내은행의 입지특성

은행점포의 입지는 그 점포를 찾아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유형 그리고 은행의 경영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정섭(2006)은 은행점포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은행고객은 서비스와 이미지보다는 접근성 요인으로 인하여 은행점포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성연(2008)은 거래은행을 선택하는 주요 고려요인으로 편리성, 가까운 지점, 수수료, 친절도, 규모, 대기시간, 규모나 안정성과 같은 요인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은행평가 요인으로 인적서비스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고객에 대한 대응성, 직원의 용모나 표정으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고, 영업장 환경요인으로 주차의 편리성, 영업장 내부시설, 편의시설과 같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은행점포로의 접근이 용이한가의 부를 판단하는 접근성, 은행의 점포나 간판이 집결하기 쉬운가를 판단하는 가시성, 은행 내부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설성을 주요 3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포의 설치에 은행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면서 영속하는 기업으로 은행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설비투자이다. 따라서 은행에서의 점포 입지 타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먼저 해당금융기관의 현재 경영상태, 영업현황 및 점포망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비교한다. 이때 경영전략은 점포입지선정의 기본도구와 점포입지 선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특히 목표시장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점포 입지선정의 후보지역이 떠오르게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점포입지선정에서의 오류로는 그 후보지가 금융기관의 영업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그 금융기관의 영업현황분석과 경영전략에 따른 점포입지선정 기본방향의 결정이 중요해진다.

기본방향 설정 후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특히 금융기관

입지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입지의 편리성이다. 금융기관과 같이 서비스 자체가 고객특성에 기초하는 산업의 경우 점포의 입지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둘째, 경쟁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자와의 거리는 자원의 공유나 고객의 유인 등을 위하여 근접한 경우나 일정지역 내 경쟁자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고객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교통 및 도로사정 등이 있으며 넷째, 원가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인 건축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다섯째, 고객의 수는 결국 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인구, 인구특성 및 인구변화 추세를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구수와 특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인구특성 및 인구변화 추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인구수와 특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인구특성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구특성에는 소득, 소비형태, 생활수준, 납세규모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영업규모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지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다. 그 외 법적인 규제, 인력조달, 인력유지비용, 통신서비스 등이 있다.

## (2)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

고객은 은행점포를 이용하지 않아도 송금, 공과금 납부는 물론 계좌개설, 예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송금을 하거나 공과금을 내기 위하여 직접 은행점포를 찾아가는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거래가 가능한 여러 금융서비스 중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은행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령층이거나 전자금융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한정되고 대부분의 고객이 더 이상 은행점포를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과 같이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해 상담도 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점포를 방문하여야 한다. 바로 이점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전자화 되어도 점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마트 폰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거래 기여도가 높고 금융상품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 폰뱅킹 고객이 늘어나면 창구거래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A은행은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사무소당 스마트 폰뱅킹 1일 평균 거래량은 2,466건으로 창구인력 1일 업무 기준량 200건보다 12.3배나 효율이 높다고 나왔다.

현재 스마트 폰뱅킹의 주 이용자층인 20~30대의 점유비중이 하락하면서 50대 이상의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 고객 수는 1억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기)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ATM기는 대면거래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고객들의 바쁜 업무로 인한 현금 입출금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이점이 있었는데, 스마트 폰뱅킹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카드결제 또한 늘어나면서 현금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ATM기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ATM기뿐만 아니라 은행점포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감소추세였지만 은행점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



다. 그러나 작년부터 몇몇 대형은행들이 몇몇 은행점포를 폐점 하였다. 시중·지방은행 13곳의 사업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점포 수는 5890곳으로 2014년 말(6055곳) 대비 165곳이 감소했다. 은행별로 따져보면 우리은행의 지점이 993곳에서 956곳으로 1년 새 37곳이 줄었고, SC제일은행도 283곳에서 254곳으로 총 29곳이 줄었다. 지점은 축소하는 대신, 직원 2~3명이 상주하며 태블릿PC등을 활용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샐’과 스마트뱅킹센터 등은 늘려 은행공간과 은행입지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마트 폰뱅킹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은행점포의 비중은 현재의 ATM기처럼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은행점포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은행점포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은행점포는 새로운 입지특성에 맞게 새로운 곳으로 입지할 것이다.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위치나 소득이 높아 은행에 수익성을 높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될 것이다.

### 3. 대구시의 은행업 영업지점 분포

우리나라는 금융자동화기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전국 금융업체수는 15,157개, 종사자 수는 341,775명이었다. 2014년 기준 현재 전국의 금융업체는 22,051개, 종사자 수는 275,754명으로 업체 수는 45.48%의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 수는 19.31%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2> 금융업체의 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종사자수의 경우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융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하여 금융업이 전자화 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인력의 수요가 적어진 것에 기인한다.

<표 2> 금융 산업 변화추이

		1993	2000	2007	2014	증감률(%)
전국	사업체수	15,157	19,573	20,417	22,051	45.48
	종사자수	341,775	263,719	265,804	275,754	-19.31
대구광역시	사업체수	820	1,033	1,022	1,109	35.24
	종사자수	14,381	12,813	10,723	12,153	-15.48

대구광역시의 경우 1993년은 금융업체 수 820개, 종사자 수는 14,381명이었고, 2014년 기준 금융업체 수 1,109개, 종사자 수는 12,153명으로 금융업체 수는 35.24%로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0.58%로 감소하였다.<표 2>

<표 2>의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도 전국의 비율처럼 사업체수는 증가율을 보이고, 종사자수는 1993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변화율과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사업체 수는 19,573개로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263,719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통계청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의 금융업의 2014년 사업체 수는 1,109이며 중구는 172개, 동구는 135개, 서구는 97개, 남구는 81개, 북구는 168개, 수성구는 195개, 달서구는 191개, 달성군은 70개이며 수성구 달서구 북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성군 순서로 사

업체 수가 있으며, 면적당 가장 많은 점포 수를 가진 지역구는 7.06km<sup>2</sup>의 면적을 가진 중구이다. 그리고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함에 불구하고 사업체 수는 꼴찌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으로서 29.62%이며 남구와 북구는 각각 3%, 3.57% 감소율을 보였다. 중구는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13.16% 증가율을 보이며, 수성구는 2007년에 달서구보다 사업체수가 적었지만 2014년에 역전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 대구 금융 산업 사업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중구	152	152	181	184	182	183	174	172	13.15%
동구	124	123	120	125	125	128	132	135	8.87%
서구	100	102	96	99	105	108	103	97	-3%
남구	84	77	76	75	74	76	80	81	-3.57%
북구	158	157	158	162	162	172	171	168	6.33%
수성구	170	177	180	183	192	190	196	195	14.71%
달서구	175	181	188	190	198	204	201	191	9.14%
달성군	54	59	59	61	62	65	66	70	29.63%

#### 4. 점포 수 만족도 및 은행 방문율 변화

##### 1) 실거주지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

실거주지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지의 실거주지 항목과 실거주지의 점포 수 만족도 항목을 토대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실거주지\*점포 수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K <sup>2</sup> 값
수성구	빈도	12	19	18	0	0	49	
	구성비(%)	24.5	38.8	36.7	0	0	100	
서구	빈도	0	1	7	26	8	42	
	구성비(%)	0	2.4	16.7	61.9	19.0	100	
기타	빈도	0	1	2	6	0	9	
	구성비	0	11.1	22.2	66.7	0	100	
전체	빈도	12	21	27	32	8	100	
	구성비(%)	12.0	21.0	27.0	32.0	8.0	100	

다음 <표 4>는 실거주지에 따른 점포 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점포 수 만족도는 1번으로 갈수록 매우 많다, 5번으로 갈수록 매우 부족하다는 나타내는 5점 척도이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대적 고소득 지역에 속하는 수성구 황금동 지역은 점포 수 만족도에서 부족하다와 매우부족하다는 답변이 없고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의 답변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금융업이 아주 잘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반면 대구 내에서 상대적 저소득 지역에 속하는 서구 비산동 지역은 답변에서 매우 많다, 많다는 답변이 거의 없고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금융업의 발달이 매우 미약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소득에 따라 금융소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을 진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점근 유의확률이 Pearson 카이제곱에서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소득에 따라 금융소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 2) IT뱅킹 사용이후의 은행 방문을 변화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화와 IT뱅킹의 탄생은 은행 이용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 폰을 활용한 IT뱅킹으로 인하여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 IT뱅킹의 사용유무와 IT뱅킹이 나온 이후의 은행방문의 변화 항목의 조사를 통한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보았다.

<표 5> IT뱅킹 사용유무에 따른 IT뱅킹 이후의 방문 변화

	늘었다	똑같다	줄었다	매우 줄었다	전체	K <sup>2</sup> 값  52.294a (0.000)
매우 자주 이용한다	0	1	1	6	8	
자주 이용한다	0	8	21	6	35	
가끔 이용한다	2	21	16	1	40	
이용하지 않는다	1	16	0	0	17	
전체	3	46	38	13	100	

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IT뱅킹을 자주 사용하는 층에서는 IT뱅킹을 사용한 이후에 은행방문율을 매우 줄었다 혹은 줄었다 로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또한 가끔 이용한다에 답변한 층에서는 줄었다 혹은 똑같다에 답변한 사람이 다수였다.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한 사람은 똑같다에 답변한 사람이 다수였다.

이를 통하여 IT뱅킹을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은행 방문율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IT뱅킹을 사용할수록 은행 방문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를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을 진행한 결과 다음<표 5>와 같이 Pearson 카이제곱에서 점근 유의확률이 0에 수렴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IT뱅킹을 사용할수록 은행 방문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 3) 주민 만족도로 본 문제점 및 해결방법

현장조사의 분석결과 상대적 고소득 지역에 속하는 수성구 황금동 지역은 금융업이 잘 발달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 저소득 지역에 속하는 서구 비산동 지역은 금융업이 잘 발달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채택한 ‘주거지역의 소득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통계자료 분석 기법을 토대로 채택하여 상대적 저소득 지역에서는 특정 소비자 집단이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별 혹은 배제되는 현상인 금융소외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 폰의 보급화와 이에 따른 IT뱅킹의 발달로 인하여 은행 방문율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IT뱅킹을 사용하는 그룹과 사용하지 않는 그룹을 분류하고 사용빈도에 따른 은행 방문율을 확인한 결과 ‘IT뱅킹을 사용할수록 은행 방문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고 IT뱅킹이 은행방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금융업은 입지를 하기 위한 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맞는 조직과 판매 전략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며 상품판매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은행과 고객사이의 거래가 일어나는 점포에서는 은행상품의 비가격성, 막대한 개설투자비, 한정된 투자기회, 점포 영업실적과 은행영업실적 사이의 직결성 등으로 은행경영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은행이 입지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입지의 편리성, 각각 은행 간의 경쟁관계, 고객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원가측면에서 중요한 건축비용, 단위 면적당 고객 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최근 금융업의 전자화는 금융업의 인력수요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국의 금융업체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원 수가 줄어든 이유에는 금융업의 전자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진행한 설문에서 스마트 뱅킹을 사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보아 확인을 한 결과 스마트 뱅킹을 사용하는 그룹은 은행의 이용률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굳이 고객이 은행까지 오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은행의 종사원 감소와 추후 은행의 점포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의 입지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입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금융소외현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입지에 있어 자본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지역은 서구 비산동 지역과 수성구 황금동 지역으로 진행을 하였다. 조사의 결과로는 상대적 고소득 지역에 속하는 수성구 황금동 지역에는 금융업이 상당히 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민 인식 또한 금융업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상대적 저소득 지역에 속하는 서구 비산동 지역에서는 금융업이 잘 분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인식에서 금융업이 모자라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금융업에 대하여 소외현상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업의 입지는 자본의 유동이 빠른 곳에 대개 위치하기 마련이다. 상대적 고소득지역으로 선정된 수성구 황금동 지역은 대구 내에서 자금의 유동이 원활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 금융업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반면에 상대적 저소득 지역으로 선정된 서구 비산동 지역은 도시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자금의 흐름 또한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처럼 대개 금융업을 포함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자본의 흐름이 원활한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된다. 또한 이것이 지역 내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이는 다시 여타 다른 생산자 서비스업을 지역에 들어오게 만들며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어 지역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입지를 하기 어려우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 역시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다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반복된다.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구 지역은 금융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지역의 도시재생을 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여야 한다. 서구지역은 1970년대 국가공단이 위치한 이후 크게 발달을 하였지만, 이후 도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슬럼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민들이 점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후화가 진행 되는 것이다. 국가공단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도시의 기능 및 외관을 잘 정비하며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 한 후에 다양한 방안으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서 부정적인 순환을 끊어 내야할 것이다. 한번 자본이 유치되기 시작하면 금융업 및 여타 생산자 서비스업이 입지를 하게 되며, 이것이 도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 6. 참고문헌

고 흥, 2013, 서울지역 시중은행지점의 매출과 점포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오명, 2008, 금융기관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은진, 2012, 금융 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금융소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섭, 2006, 입지특성에 따른 고객의 은행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소재 시중은행을 사례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진·이금숙, 2013, 금융산업의 분포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분석: 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

이희연, 2011, 경제지리학, 법문사

## 7. 부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금융업 분포의 공간적 특성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로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전공으로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견해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도교수 : 최 병 두

연구자 : 송 영 민, 박 민 수

연락처 : 010-3484-3578

010-9511-7588

### I. 다음은 이용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층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15~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9세  
⑦ 70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주부                      ③ 사무직/생산직 회사원  
④ 자영업                      ⑤ 서비스직 종사자                      ⑥ 공무원/교사  
⑦ 전문직 종사자                      ⑧ 사업자                      ⑨ 기타(                      )

4. 귀하 가구의 가구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1만원~300만원                      ③ 301만원~500만원  
④ 501만원~1000만원                      ⑤ 1000만원 이상

5. 귀하의 현재의 실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① 북구                      ② 서구                      ③ 중구  
④ 동구                      ⑤ 남구                      ⑥ 수성구  
⑦ 달서구                      ⑧ 달성군                      ⑨ 경북 (                      )  
⑩ 대구·경북 외 지역 (                      )





